**2017 워크샵 조명 인수인계서**

최성지 전종훈 김수종 김도영 도히 조승아

* 조명 관련 용어 정리

|  |  |
| --- | --- |
| 용어 | 설명 |
| 라인 | 조명과 채널(혹은 콘솔)을 연결시켜주는 선 |
| 딸깍이 | 조명이 작동하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라인. 모양은 라인과 비슷하나 중간에 on/off 버튼이 달려있음 |
| 채널 | 원형극장, 소극장 등 교내에 있는 극장들은 콘솔기기가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조명과 채널을 연결하면 콘솔을 통해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다. 검은색 바에 적혀있는 숫자들이 곧 채널이다. (ex. 1채널, 2채널, … )  다만 율전 소극장은 배치 되어있는 기기가 없으므로 자체 콘솔을 사용함. |
| 바(bar) | 채널이 적혀있는 막대기를 바라고 함 |
| 대파 | 일반적으로 쓰이는 조명의 한 종류. 넓은 영역을 쏠 수 있다. |
| 엘립 | 스포트라이트를 생각하면 됨. 좁은 영역을 쏠 수 있다. |
| 에어리어(area) | 조명 영역. 어느 조명을 어느 위치에 쏠 것인지를 정할 때, ‘에어리어 잡는다’라고 함 |
| 젤라틴 | 조명은 기본적으로 흰(노란)색 빛이기 때문에, 색조명을 쓰고싶을 경우 젤라틴을 이용해서 조명의 색깔을 바꿔주어야 함. 네모난 셀로판지처럼 생김(보통 대파에 사용한다.) |
| 콘솔 | 모든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는 기기. |
| 큐시트 | 조명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됨. 어느 대사에 어느 조명을 사용할건지를 적어놓은 것 |
| 조도 | 조명의 밝기 |
| D. I.(Deem in) | 조명을 서서히 키는 것 |
| D. O.(Deem out) | 조명을 서서히 끄는 것 |
| C. I.(Cut in) | 밝기의 변화 없이 조명을 바로 키는 것 |
| C. O.(Cut out) | 밝기의 변화 없이 조명을 바로 끄는 것 |
| 뒤깎이 | 보통 극의 러닝타임이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리허설을 하면 기본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명과 음향이 나오는 부분만 빠르게 맞춰보는 것을 뒤깎이라고 함. 공연 전날 무대설치 후에 진행됨 |

1. 조명 제반사항 파악하여 area 결정 미리 하기

* 공연 시작 몇 주 전부터 각 캠퍼스에 조명과 조명관련기기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율전과 명륜 모두에서 딸깍이를 이용하여 조명- 대파, 엘립의 개수를 확인하고 라인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 미리 확인해 놓아야 한다. 이번 공연 때는 무대를 대여하는 날이 적어 미리 area를 확인하고 정할 수 있을 수가 없었다. 무대 대여하는 날을 좀 더 늘려 조명 팀이 area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을 듯 하다.

1. 대본분석 및 큐시트 작성

* 극대본이 나오면 조명팀은 대본분석를 한 후에 큐시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매 공연 때마다 연출과 상의하면서 최종적인 큐시트를 작성해야 한다. 큐시트는 공연 전까지 계속 바뀐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피드백을 잘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동방에 놀러가서 배우의 연기를 보고 큐시트를 수정해 나가야한다. 이번 공연 때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다.

1. 조명 수리 및 변환 작업

* 이번 공연의 경우 조명을 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공연 때 수리가 필요할 경우를 위하여 115회 조명 인수인계서를 참고하면, 대부분 을지로/청계천 쪽에서 조명 부품을 사오거나 아니면 조명을 직접 들고 가서 수리한다. 일반 인테리어 조명가게는 우리가 원하는 조명을 팔지 않으니 패스하면 대파의 전구랑 엘립을 수리한 곳은 을지로 4가 1번출구에서 한 5분정도 걸으면 찾을 수 있는 미래 특수 조명에서 했고, 명륜원형극장에서 공연하기위해 필요했던 비절연 원형압축단자는 청계천 4가 버스정류장 쪽에 있는 우신전기라는 곳에서 구매했다. 큰 길가보다는 골목에 들어가면 있는 가게에 가서 사면 된다. 또한 청계천 쪽으로 가면 조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백화점들이 있다. 잘못하면 2시간동안 가게마다 들어가면서 특정 물품을 취급하는 지 물어보는 경우도 생긴다. 선배들과 같이 갈 걸 추천한다.
* 율전 소극장의 경우 콘솔기기가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 극회 내에 있는 콘솔기기를 써야 했다. 극회 내에 있는 콘솔은 조명과 직접 연결해서 써야 하는데, 콘솔기기와 조명을 직접 연결할 경우 ‘라인 변환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돼지코 변환 작업’이라고도 부른다. 보통 라인은 양 끝에 네모난 플라스틱 모양의 것이 달려 있는데, 한쪽 부분의 플라스틱을 해체해야 한다. 해체한 부분을 돼지코 모양(아마 110v)의 어댑터로 연결하여 그 어댑터를 콘솔기기에 연결하면 된다. 명륜에서는 극장 내에 콘솔기기가 비치되어 있어 돼지코어댑터를 다시 원래 라인의 모양으로 변환작업을 해야 했는데, 이 때 ‘터미널단자’라는 것이 필요하다. 청계선 4가 쪽의 ‘우신전기’라는 곳에서 팔고 있으니 거기서 사면 된다. 그리고 라인 변환 작업 시 적어도 2 3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번 돼지코 변환 작업 때 힘들었던 것은 돼지코를 만드는 재료가 대부분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 공연 때는 미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돼지코 재료를 구비해놓아야 할 것 같다
* 극회 내에 있는 콘솔을 사용할 경우, ‘퓨즈’라는 것을 미리 구비해놓으면 좋다. 가끔 조명도 잘 작동 되고 라인도 아무 문제 없는데 조명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건 콘솔의 채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채널마다 퓨즈가 1개씩 들어가는데 작동하지 않는 채널의 퓨즈를 갈아주면 대부분은 다시 잘 켜진다. 현재 퓨즈의 여분은 율전동방에 15개 정도 있다.